

기획

필요한 정보, 유령 홈페이지에서 찾아야 하나

박재령 기자 kpparr@knu.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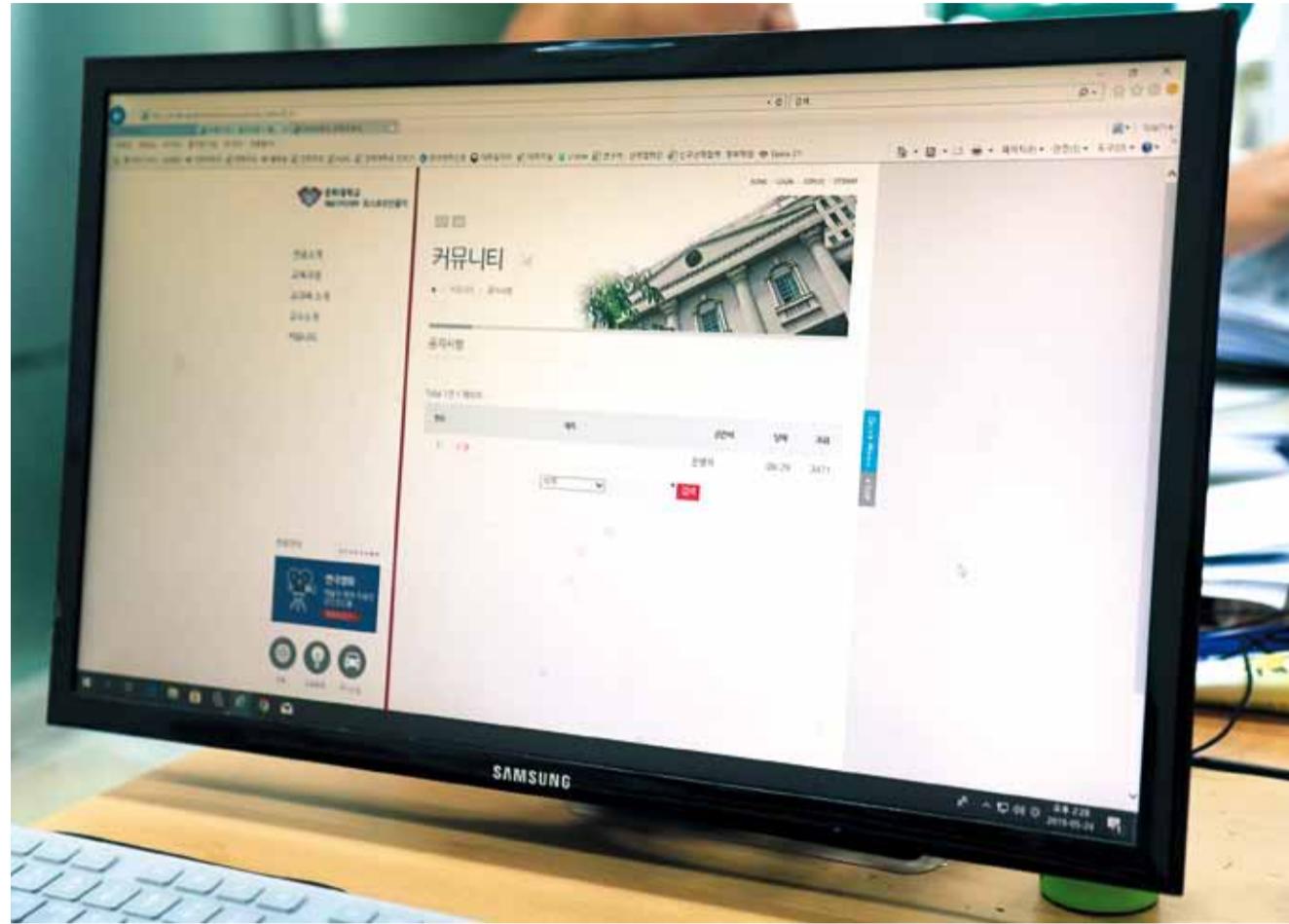
우리학교 홈페이지가 학생의 시선에서 멀어지고 있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정보가 업데이트 되지 않고 유령화 된 홈페이지도 있었다. 통합적인 사이트 관리 기준은 여전히 부재했다.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는 웹 환경에 대응하려면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각 부서의 적극적인 개편 의지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우리학교에는 메인 홈페이지를 비롯해 학과, 대학본부, 부속기관 등 약 200여 개가 넘는 홈페이지가 있다. 홈페이지는 정보와 구성원 간 소통의 장을 제공한다. 또한 외부인에게 처음 보이는 얼굴로 '브랜드 형성'의 기능도 한다. 그러나 홈페이지는 접근성, 편의성 부족이나 오작동으로 시간이 갈수록 구성원에게 외면받고 있다.

사용률이 낮은 주된 이유는 다양해진 사용 환경에 대응하지 않아 발생한 불편함이다. 학생의 이용이 가장 많은 종합정보시스템(종정시), KLAS는 브라우저 별 호환성이 완벽하지 않았다. 종정시 일부 기능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작동한다. 등록금 고지서 조회 및 출석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KLAS 또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최적화되어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업로드가 불안정하다. 각 홈페이지 별로 관리와 개발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브라우저를 쓰게 되면 콘텐츠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등의 오류가 발생한다.

학과 및 단과대 홈페이지 87개 중 26개 홈페이지는 구글 '크롬'으로 이용할 때 화면 깨짐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홈페이지가 Adobe사의 플래시로 구현돼 있기 때문이다. 플래시는 렌섬웨어의 공격 통로로 악용되는 등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최근 웹 환경과 브라우저들은 플래시를 제외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플래시로 구현된 사이트가 다수 남아있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통계에 따르면 PC 환경에서 크롬 브라우저의 점유율은 60%를 꾸준히 상회하고 있어 그만큼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는 셈이다.

모바일 호환도 미흡했다. 학과 및 단과대 홈페이지 87개 중 25개의 홈페이지가 모바일 호환성이 되지 않았다. PC 버전으로는 작은 글씨와 화면 깨짐 등으로 정보를 찾기 어려웠다. 이외에도 입학처와 국제교류처, 일부 대학원 홈페이지를 제외한 학내 홈페이지는 모두 모바일 호환성이 되지 않았다.



접근 및 편의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예술·디자인대학 홈페이지의 모습이다.

이지 역시 거의 모바일과 호환되지 않았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유명무실한 상태인 홈페이지도 여럿 발견됐다. 약 20개가 넘는 홈페이지가 최근 1년간 게시물이 없었다. 또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Q&A 게시판이나 회의록 공개 페이지인 Communication21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 접근 경로가 사라져 존재하지만 찾을 수 없는 경우나 엉뚱한 사이트로 연결되는 경우도 있었다. 국제캠퍼스(국제캠) 심리 상담 센터는 홈페이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부속기관이나 학생지원에 소개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한의 학연구소 홈페이지는 해외 사행성 사이트로 연결됐다.

홈페이지마다 천차만별인 UI(User Interface) 구성과 질도 문제였다. 비교적 최근 개편돼 깔끔한 학과 홈페이지가 있는 반면 10년 전과 차이가 없는 학과도 있었다. 같은 단과대에서도 디자인과 UI가 각기 달라 통일성이 없는 것이다. 홈페이지마다 다른 UI와 기능은 지저분해 보일 뿐 아니라 이용할 때 혼란을 야기했다. 외부인에게

처음 보이는 브랜드 이미지로서의 역할도 기대하기 힘든 것이다.

이는 통합적인 사이트 관리 기준의 부재 때문이다. 우리학교 홈페이지의 전체적인 디자인과 UI를 결정하는 부서는 커뮤니케이션센터다. 그러나 이는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다. 대부분 해당 부서의 자율에 맡기다 보니 운영 주체가 홈페이지마다 다른 것이다. 이는 우리신문에서 한 차례 지적된 바 있다.(하위 사이트·다양한 환경 아우르는 홈페이지 관리 필요해/대학주보 제1555호 5면, 2013.11.18.)

운영 주체가 달라 개편도 각기 다르게 진행된다. 우리학교는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있다. Info21사업으로 올해 하반기 안에 종정시가 개편될 계획이다. 메인 홈페이지 역시 지난해 새 단장을 마쳤지만 이러한 개편이 다른 홈페이지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쌓인 문제점들은 구성원을 홈페이지로부터 더욱 멀어지게 했다. 역할을 잊은 홈페이지의 자리는 SNS가 대신하고 있었다. 포스트모던음악학과 행정실 측은 "학생들이 홈페이지를 잘 안보다 보니 직접 카카오톡

을 통해 공지를 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국어국문학과 행정실 측은 "사람이 많이 없는 세부 전공 같은 경우 자료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홈페이지 수요가 떨어진다"며

"정보는 주로 페이스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밤길이 끊기니 홈페이지 개편에 대한 논의는 후순위로 밀렸다. 관리 부족으로 인한 수요 하락이 또 다른 관리 부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행정실은 개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를 찾고자 할 때는 홈페이지가 가장 기본적인 매체다. SNS나 KHU알리미 등은 보내주는 것만을 받는 수동적 매체다. 다전공 및 전과 요강 등 본인 학과와 정보를 찾을 때는 홈페이지에 의존한다. 커뮤니티나 SNS를 하지 않는 구성원 혹은 외부인 또한 홈페이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조준상(국제학 2016) 씨는 "다전공이나 부전공 학과 정보를 찾을 때 모바일로 홈페이지를 이용한 적이 있다"며 "글씨가 너무 작고 게시글이 뜨지 않아 이용하기 불편했다"고 전했다.

홈페이지가 유명무실해져도 서버관리비나 서비스 구축비 등 유지비는 계속 들어간다.

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측은 "업무량이나 어떤 언어로 개발되느냐에 따라 비용이 다르다"며 "편차가 심한 편이지만 홈페이지가 유지되기 위해선 일정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사실상 운영되고 있지 않은 예술·디자인대학 학과 홈페이지도 유지·보수비를 연 단위로 지출하고 있다.

접근 및 편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은 웹 표준이다. 웹 표준은 웹에 하나의 표준을 도입해 어느 환경에서도 똑같이 보이고 작동하게 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웹 표준을 준수한다면 브라우저 별 호환성 문제나 모바일 호환 문제가 해결된다. 지난해 개편된 메인 홈페이지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는 웹 표준 권고를 지키도록 개발된 사례다.

그러나 웹 표준을 모든 홈페이지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전체적인 홈페이지의 운영 주체가 없고 각 단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일괄 개편이 거의 불가능하다.

통합적인 사이트 관리 기준을 세우고 운영 주체를 일원화시켜 UI나 기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세운다면 홈페이지를 정상화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관리 규정을 세우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커뮤니케이션센터 측은 "부서별로 예산도 다르고 사정도 다르다"며 "개편을 일괄 진행한다거나 학내 모든 홈페이지를 한 곳에서 관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결국 각 부서의 적극적인 개편 의지가 필요하다. 지난 2월 개편된 철학과 홈페이지는 문과대학 내에서 유일하게 모바일 호환이 가능한 웹페이지이다. 철학과 행정실 측은 "학생이나 교원 쪽에서 홈페이지 이용에 대한 만족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커뮤니케이션센터와 공동 개편을 하는 경우에도 각 부서의 개편 의지가 먼저다. 공동 개편이 이루어지면 메인 홈페이지의 검색엔진과 연동되고 디자인 일원화로 통일성이 향상된다. 웹 표준 준수로 호환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규정 상 1,000만 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홈페이지는 커뮤니케이션센터 지원 아래 개편이 진행된다. 그 미만의 규모라면 공동 개편과 자율 개편 중 선택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각 부서의 개편 의지다. 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부서가 개편을 원하지 않는다면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커뮤니케이션센터 측은 "커뮤니케이션센터 지원 아래 개편이 진행될 수 있지만 강제는 아니다"며 "해당 부서의 요청이 먼저 들어와야 한다"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LINC+ 사업단 2019학년도 1학기

학생지원 프로그램 설명회

일시 및 장소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 피스홀서울캠퍼스
청운관 B117호

대상인원 : 100명

2019.5.28.(화) 12:00

2019.5.29.(수) 12:00

설명회 종료 후 햄버거와 콜라 제공!!
(선착순 서울C 100명, 국제C 100명)

설명회 주요내용

프로그램

소개

신청기간

활동기간

Global AFRO
(경희 청년 해외개척단)해외시장 개척에 관심 있는 학생팀과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클레보레이션

2019.5.30.(목)까지

2018.6월 ~ 2019.8월

창업교육 프로그램
(KHU Valley Program)KVP는 지방적 진로 탐색 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이 스스로 진로목표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플랫폼

2019.6월 중순

2019.6월 ~ 2020.1월

수원시 지속가능도시
아이디어경진대회수원시, 경희대, 아주대, 성균관대 공동개최로
수원시의 도시재생, 사회, 환경, 복지 분야의 문제를
주제로 리빙랩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경진대회

2019.6월 중순

2018.6월 ~ 2019.9월

달링서포터즈
(LINC+사업단 학생기자단)LINC+사업단의 사업 및 현장실습, 기족회사,
특강 등 취재기획하는 학생기자단

2019.6월 중순

2019.6월 ~ 2019.12월

캡스톤디자인 경진대회

2019-1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이수자 대상 경진대회

2019.6.14.(금)까지

2018.6월 ~ 2019.7월

현장실습 프로그램안내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을 위한 지원 혼란의 기회를 제공1차: 5.15~5.21
2차: 6.3~6.7

2019여름학기

참가 자격 및 대상

- 2019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프로그램 참여(예정) 학생
- 2019학년도 1학기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참여 학생
-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심 있는 학생
-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 참여/관심 학생
- 특별한 도전을 원하는 학생
- 산학협력 교육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학생



경희대학교 의상학과 졸업작품 패션쇼
당신이 사는 그곳.
WHERE YOU LIVE

2019년 5월 31일, PM 4:00 / PM 7:00 경희대학교 중화미 전당